

회화의 자연 재료 개발에 대한 연구

- 닥(楮)과 약채(藥綵), 화채(花綵)를 중심으로 -*

김병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序

동아시아는 農本的 가치의식이 예술과 철학 전반에 걸쳐 작용해 왔다. '物我一體'의 自然觀에 의해 繪畫예술 또한 재료의 형성에서부터 가급적 人工과 化學의 조성을 피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筆墨陰陽觀이나 五彩, 五方色과 같이 陰陽五行에 입각한 재료 생성의 원리를 견지하고 있다.

색채만 하더라도 可視的 차원보다는 개념화된 관점에서 火, 水, 金, 木, 土에 원천을 둔 赤, 青, 黑, 白, 黃의 체계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개념과 실제의 整合性이 동양회화재료의 목표가 되어짐으로서 독특한 一元性을 지향하게 된다. 예컨대 실제로 땅은 黃色에 가깝고 하늘은 青色에 가까운데 이는 개념적으로도 黃은 上色이고 青은 天空의 色이라는 것이다. 이 실제와 개념의 관계는 物性과 精神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 두 차원의 일원적 통합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畵紙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 農本的 회화가치와 재료체계는 상당 부분 변질, 와해되었다. 근자에는 서구 미술 재료의 혼용 등으로 동양회화재료의 특징이 많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어진 감이 있다. 이에 본고는 종이와 채색의 측면에서 전통재료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실험, 혼용에 의해 회화 제작에 도입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1. 紙의 物性과 닥(楮)

수묵화의 특성, 예컨대 餘白의 美學과 濲墨, 破墨, 渲染 등의 技法은 화선지의 삼투성과 흡수성을 이용한 효과이다.

두께 1mm 미만의 종이에서 수분의 흡수시간이 400여분에 이르는 특수한 작용의 과정 때문에 거의 물과 같은 정도의 淡墨으로부터 焦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예민하게 여러 단계의 濃淡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질감과 공간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 흡수성의 민감함과 함께 섬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순간적인 筆迹과 墨痕까지 모두 드러내게 되는 것은 물론 '骨法用筆', '氣韻生動' 같은 미의식의 개념을 넣게 되는 것이다.

동양회화의 역사가 面보다는 線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가설은 手筆에 의한 먹을 수용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화선지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수묵화의 여러 기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餘白, 骨

*본 논문은 96년도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法, 渲染 같은 기본적 수묵화 기법들은 화선지의 성격을 떠나서는 제대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晚唐 이후 宋代에 이르면서 화용지가 널리 보급되어짐에 따라 초기 인물화의 의습준(衣褶皴)이 絹위의 鐵線描위주에서 菲선의 다양한 기교와 함께 의취 짙은 사의문인화(寫意文人畫)로 나가게 된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特長들에도 불구하고 화선지는 내구성이 약하다는 결정적인 흡이 있다. 고도의 정신수련을 요하기 때문에 소박하게 여러번씩 거듭되는 봇질이 용이하지 않다. 화선지가 문인이나 승려, 사대부 등 학식과 정신수련이 높은 계층에서 선호되었던 것도 이 때문에이다.

2. 닥지(楮紙)

이에 반해 조선 화용지인 닥지는 화선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내구성을 가진다. 질긴 닥섬유소에 의해 캔버스 이상가는 내구성과 수명을 가지고 있다. 과도하게 표백하지 않았을 때는 ‘닥’의 결이 그대로 묻어나고 그 자연색이 나타남으로 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재료가 된다.

화선지가 종이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일회성에 의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첩하는 기법을 파하고 一筆에 의한 一筆揮之로 발달했던데 비해 닥지는 그런 점에서 표현의 범주가 훨씬 넓게 열려 있다.

화선지의 눈부신 素性은 사실 ‘표백제’의 사용에 의해 物性의 흔적을 최소화시키거나 증발시켜 버린 것인데 반해 농경 문화적 物性과 自然性을 그대로 그려 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정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A) 변 용

닥지는 죽지(竹紙)나 목화에 의한 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입자가 거칠다. 따라서 자연색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닥에 의한 한지(韓紙)는 어느 정도 발목이나 선염에 있어서는 화선지에 떨어지는 감이 있다.

필선 뿐 아니라 墨의 임리한 번짐과 억양, 비수, 강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대신 강한 힘을 가해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상당한 신체적 힘이 가해지는 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화선지 위의 필선도 발산적이기보다는 내재적 힘을 응축하여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 할 것이다. 필력이 함양되기 전에는 직설적인 힘이 가해진 선을 그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종이 표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닥지는(天然 白楮으로 제조된 경우) 상당한 힘이 가해진다 해도 결코 화면의 손상이 오지 않는다. 따라서 초보자라도 장봉에 의해 마음껏 힘있는 선을 그을 수 있게 된다.

필자는 닥섬유의 내구성을 살리면서도 화선지의 민감성과 유연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原纖柔를 분쇄하여 닥풀과 지점토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사진) 다시 치자물을 들여 자연색을 내는 ‘닥판’을 개발했다.

닥판을 만들기 전 목재 판재(사진) 위에 초배지와 순지를 여러겹 붙이고(사진) 완전히 마른 후 반죽된 닥섬유를 손을 이용해 전면에 두세차례 도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뜰채에 의해 한지를 또는 전통적 방법과는 달리 거의 무한 크기의 닥표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성 종이를 이

어 불일 경우 나타나는 흄결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대작을 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기성 완제품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작가의 손길, 내밀한 호흡, 체온 등이 가미되어 점으로 인하여 한 화면을 만들 때마다 그 공정에서부터 '작품화' 되어 간다는 점을 特記할 수 있다.

닭섬유와 지점토를 6:4의 비율로 닭풀과 물에 의해 반죽한 다음 여기에 적정량의 치자물을 가미할 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 누르스름한 색상의 화면이 만들어짐으로서 단 한방울의 먹물도 허용되지 않은 화선지의 비인간적인 순백의 세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훈훈함, 따뜻함, 소박함, 너그러움의 한국미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도판1~4).

3. 약채(藥彩)와 화채(花彩)

우리 민화나 佛畫 등에서는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맑고 담백한 맛의 채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 약용식물에 의한 약채와 야생화나 야생 식물에 의한 화채가 많이 써여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물론 청남색 계통의 '쪽'과 붉은색 계통의 '홍화'가 있다. '쪽'은 이미 몇몇 민간인이 회화채색연구보다는 염색 차원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내 놓고 있어 그 채도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홍화는 숙성한 나무의 완전히 마른 꽃잎을 따서 다시 그늘에서 건조시킨후(사진) 물 2l에 약 300g 정도를 넣고 약한 불에 끓였다가 식혀서 다시 끓이기를 4~5차례 하면 맑은 주홍빛 색채가 나오게 된다.

'치자(梔子)'(사진)는 꼭두선과의 상록관목으로 남부지방의 따뜻한 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 4~5년생 나무의 처음 열매를 따서 말려 보관하는데 반드시 찬서리가 내릴즈음 완전히 주황색으로 익은 열매를 거두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색깔의 제조는 쓰임새의 농담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필자의 경우 거의 색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치자색으로 닥판을 만들기 때문에 소량의 열매를 사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물을 끓일 때 명반이나 아교 등을 소량 넣고 함께 끓임으로서 색이 발산하거나 응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황(地黃)은 생지황(生地黃), 건지황(乾地黃), 숙지황(熟地黃)등으로 나뉘는데 '숙지황'은 약재로 쓰이는 덩어리를 그대로 끓이거나 물에 풀어 사용하는데 특히 먹과 섞어 쓰게되면 이중적인 발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사진). 黃土와 먹을 균간으로 한 천강산수(淺絳山水)와 같은 먹과 색의 중용적인 습-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담(淡)하고 고조(古調)를 띠운 색채에 있어서 숙지황은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화채의 경우 지나치게 가벼운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숙지황으로 보완하고 묵직하면서도 침중한 갈색 성향을 내기에 적합한 것이다.

아교나 바인더메디움을 섞으면 침중하면서도 지나치게 어두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설채한 후에 편필을 물에 적셔 우려 줄 경우 독특한 발색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산수유(山茱萸), 구기자(枸杞子), 홍약(紅藥: 붉은 작약(芍藥))등도 훌륭한 채색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맑고 밝은 담채(淡彩)를 얻을 수 있다(도판 5~7).

4. 제작에의 응용

본인의 작품 '생명의 노래' 연작은 특히 우리 山河에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를 필묵의 방법에 의해 한국적 미감(美監)으로 연역해 내려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견인성을 보여주는 닥섬유소를 분해 변용시켜 시골돌담의 정겨운 흙맛과 창호의 누르스름한 정서를 느끼도록 닥판을 만들었다. 여기에 필선의 역동성을 살려 ‘氣韻生動’과 ‘骨法用筆’의 미학을 재해석 해보려고 꾀하였다. 아울러 인간, 동물, 나무(특히 소나무) 등의 형상을 훈연하게 한마당에 연출하여 상생(相生)의 세계를 그려 보려한 것이다(도판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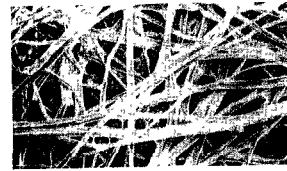
도판목록



도판 1
생탁나무의 껍질 심유



도판 2
석정 온노로 물에 삼은 후의 낙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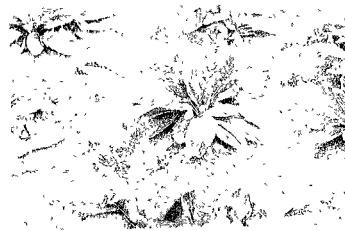
도판 3
고해 한후의 낙섬유



도판 4
닥지의 단면임자



도판 5
치자(槐子)열매
상록관목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잘 자라며
은은한 담홍색을 낸다



도판 6
지황(地黃) 생약망은 생지황(生地黃), 건시황(乾地黃), 숙지황(熟地黃)이다. 생지(生地), 진황(天黃), 인황(人黃), 산백채(山白菜), 자화시황(繁花地黃), 자지황(紫地黃), 사색지황(紫色地黃)등의 속명이 있다



도판 7
김초(甘草) 적정온도로 끓여 투명한 턴황색을
얻을 수 있다



도판 8



도판 9



도판 10
「생명의 노래」



도판 11
「생명의 노래 - 숲에서」



도판 12
「생명의 노래 - 숲에서」



도판 13



도판 14